

‘7인회 백의종군’에 ‘86 용퇴론’까지...민주 불붙은 인적 쇄신

이재명 최측근 의원 그룹

지지율 정체 돌파 고육책

도미노식 인적쇄신 될 수도

존재감 없는 호남 정치권 ‘죽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가 24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여권 내부의 인적 쇄신 여론에 불을 댕겼다. 가진 그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으로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

특히,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은 민주당의 기득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용퇴론’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호남 정치권의 운동권 및 관료 그룹에 ‘죽비’와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7인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희 7명은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7인회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과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작년 9월 의원직을 잃은 이규민 전 의원은 불참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친노(친노무현) 핵심 참모 인사 9명이 선대위에서 전격 사퇴한 것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등 이른바 ‘3철’을 비롯한 9인방의 퇴진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교착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7인회 인사들의 이날 선언은 선대위직 사퇴는 아니었지만 집권시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공언인만큼 적잖은 무게감을 지녔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움직임이 당내 ‘86 그룹 용퇴론’과 맞물리면서 여권 내부의 도미노식 인적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7인회의 이날 백의종군 선언 자체가 추가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86 그룹 용퇴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혁신안으로 내건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동참 여부는 각자 결단의 문제”라며 “저희의 충정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은 재선 친문인 김종민 의원이 거론한 ‘86그룹 용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면서 “그러나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라고 적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이 후보 측근들의 백의종군을 넘어 과감한 인적 쇄신에 불을 던지는 등 당내 기득권 세력의 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후보 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과 당내 기득권 그룹의 용퇴론은 호남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의 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호남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는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운동권과 관료들이 대부분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나름 정권재창출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민심의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초·재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정치적 용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선대위 활동을 통해 차기 지방선거를 노리는 행보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 차기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

에선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백의종군 선언이 과대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이 아닌 대선 정국에서 86그룹의 용퇴론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이 후보가 과감하게 새로운 정치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주술 대선 후보” “무속인 그 자체”...민주, 尹 무속 의혹 난타

김건희, 영빈관 옮길 것

일반인은 바보, 국민 폄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인 친분’ 의혹에 대해 “무속인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를 겨냥, “(윤석열) 후보가 거의 주술 대통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을 예로 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의 미신, 우리로는 관습인 ‘마스크는 환자만 쓰는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믿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주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윤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지목된 건진 법사를 언급하며 “그 정도의 사무실, 네트워크위원회라는 공간을 열어 줄 정도면 후보 사모님의 영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김씨와 관계가 아니라 후보하고의 관계도 매우 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공감 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 공개된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김씨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말도 한다”며 “김건희 씨의 정체성은

무속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도 당사에서 브리핑에서 “(김씨는) 샤머니즘적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다”며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까지 ‘도사의 말’이나 ‘영적인 기’에 의존하려는 것이냐”고 꼬아붙였다.

이어 “더 충격적인 부분은 김씨가 ‘일반인은 바보다’라며 국민을 폄훼한 것”이라며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김씨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건진 법사와 배우 스님 사진을 공개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수십만 명이 관람한 초대형 전시행사였다”는 국민의힘의 해명에, “VIP 개막 전이었다. 100명 안쪽의 사람들만 초청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심상정 “억울해 다른 당 탔했다...초심으로 헌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4일 “불평등의 계곡에서 고통받는 시민들 곁에서, 그분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 헌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성찰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진보정당이) 20년 됐고, 저 나름대로는 한눈 팔지 않고 가족과 시간도 못 누리며 여

씨왔는데 돌이켜 보면 불평등은 더 심화했다”며 “그러다 보니 자꾸만 마음에 원망이 많이 생겼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정당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았는데, 저희는 작은 권력밖에 없는데 똑같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많이 억울했다”며 “그러다 보니 다른 당, 남 탓하고 그랬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與 “14일까지 본회의 처리 희망” 野 “날짜 미리 정할 수 없어”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靑 공직기강비서관 이병균, 제도개혁비서관 송창욱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균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에 합류,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및 춘추관장실 행정관 등으로 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